

“개인정보보호법·네트워크안전법에 대응하기”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2022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회장 김성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상하이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주최하고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Joius 상하이전문변호사사무소(上海君论律师事务所), 상하이계산기소프트기술개발센터(上海计算机技术开发中心)가 후원했다.

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AZ글로벌 신관수 대표의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법 ▲아이요넷 신동욱 대표의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등급 평가 및 개선 사례 ▲상하이계산기소프트기술개발센터 장맹(张孟)박사의 네트워크 안전의 규정 준수 실무 ▲joius 상하이 전문변호사사무소 김창화 변호사의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등 총 4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KISA(센터장 추현우), Joius상하이 전문변호사사무소, 상하이계산기소프트기술개발센터, 인터넷계산기협회 관계자, 기업종사자, 교민 등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IT기업협의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법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등급, 네트워크 안전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 등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해와 대비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S

개인정보보호법과 네트워크안전법이 중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KISA(센터장 추현

中 로봇시장 규모 1000억 원 돌파

첫 1000억 위안 돌파, 전년 대비 22% 성장



올해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1000억 위안 문턱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2022년 세계 로봇대회 기간 중 중국 전자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국 로봇산업발전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중국 로봇 시장 규모가 174억 달러, 약 1191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해보다 22% 성장한 것으로 처음으로 1000억 위안 돌파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 사용된 로봇은 공업용 로봇, 서비스형 로봇과 특수 로봇 세 종류로 나뉘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공업용 로봇이다. 중국 공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87억 달러로 전체 로봇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서비스형은 37%, 특수형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공업용 로봇 시장은 15.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년간 중국 공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주로 자동차, 3C 등의 분야에 공업용 로봇이 포진되어 있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업용 로봇이 설치되고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367만 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리튬 배터리 생산량은 324GWh로 106%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용량은 3억 kw를 넘어서며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는 등의 호재로 산업용 로봇이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장세가 느리지만 중국 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건설과 교육 업계의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서비스형 로봇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ANTA,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 등극

브랜드 다양화, 글로벌화 전략 성공
상반기 매출 260억 원 13.8% 증가

중국 시장에서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필승’ 시대는 옛말이다. 중국 브랜드의 품질과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브랜드를 인수 하면서 몸집을 키워 전통 강호 브랜드를 위협하고 있다.

23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安踏集团, ANTA)이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안타의 매출은 259억 6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현금 흐름은 49억 7900만 위안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순이익은 39억 5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보다 4.4% 감소했다.

안타그룹은 브랜드 다양화, 글로벌화 전략의 성공이 상반기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안타그룹은 올해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여러 국가 대표팀의 공식

협찬사를 맡으며 관련 수익이 133억 6000만 위안 늘었다. 특히 프리미엄 런닝화와 농구화 판매량이 지난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객단가도 두 자릿수 상승했다.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것도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됐다. 안타그룹은 지난 2009년 휠라(FILA)를 인수했고, 2019년에는 핀란드 스포츠 브랜드 아머 스포츠(Amer Sports)를 인수한 바 있다.

올 상반기 휠라의 수익은 107억 7700만 위안, 합작한 한국 브랜드 데상트(DESCENTE)와 코오롱 등도 특목한 효과 역할을 했다. 올 상반기 온라인 사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안타의 매출 성장은 2021년부터 심상치 않았다. 2021년 매출은 493억 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고 안타



자체 브랜드의 매출 상승은 52.5%에 달했다.

중요한 사실은 올 상반기 260억 위안의 매출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스포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6개월 동안의 매출만 보면 안타가 나이키를 제치고 중국 스포츠 시장 최대 규모 스포츠 그룹이 되는 셈이다.

안타가 지난 해 7월 메인 브랜드 런칭장에서 밝힌 향후 5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온라인 사업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매출 연평균 성장률 18-25% 유지, 3선도시까지 영입망 확대할 예정이다.

大都會 GOLF CLUB



대도회 특별행사
평일 480元 · 휴일 680元

- 1 파 3, 9홀 2회 그린 피
- 2 연습장, 당일 2시간 이용
- 3 어프러치 연습장 무료

드라이빙 레인지 + 9홀 시내에서 가깝하게 9hole 체험

• 실력 + 열정 한국인 티칭 프로 신규 모집 중

모집 문의 ▶



남성	3,100元	20회	평일 오후 3시 이전 120분 또는 3시 이후 90분
여성	3,000元		9H 평일 200元, 휴일 320元

평일 쿠폰

- 4개월 내 소진
- 주말 사용 시 쿠폰 2장 차감
- 평일 LADY'S DAY 여성 골퍼 아메리카노 무료 제공

• 골프 1:1 레슨 전문 공왕식 프로 상주 ▼